

익산시민, 공공기관유치 결의

제2혁신도시 성공적 안착 위한 민·관·산·학 범시민추진단 발족

전북 제2혁신도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익산지역 민·관·산·학이 범시민추진단을 구성하고 공공기관 유치에 나섰다.

특히 범시민추진단 구성은 2005년 혁신도시선정 당시 실행정수도, 수도권 근접성 등을 내세우며 구)토지공사와 농촌진흥청 산하 관련 기관 유치전 이후 18년 만이다.

앞으로 추진단은 시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우수한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제2의 도약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10일 제28회 익산시민의 날 행사에서 범시민추진단을 출범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공기관 유치 최적지는 익산'이라는 결의된 의지를 표출했다.

익산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단' 발대식 및 결의대회에는 시민 1,200여명이 참여했다.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단은 정현을 익산시장과 최종요 익산시의회 의장, 김원오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을 공동단장으로 김수홍 한병도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도·시의원을 비롯한 익산시 주요 기관·단체장 등 각계각층의 시민을 단원으로 총 350명으로 구성했다.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실행을 촉구하고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을 기존 혁신도시 집중배치가 아닌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이전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KTX익산역과 고속도로 등 수도권권에 접근성이 뛰어난 강점을 토대로 우수한 공공기관을 익산에 유치하겠다는 결의를 담았다.

/익산=이재훈 기자



10일 익산경찰서, 익산소방서와 시청 회의실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중한 시민생명 골든타임 확보'

익산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

익산시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으로 소중한 시민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는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시 차량 위치와 방향을 파악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녹색신호를 우선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10일 익산경찰서, 익산소방서와 시청 회의실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김종진 익산경찰서장, 구창덕 익산소방서장이 직접 참석하여 시청에서 원대병원 응급실까지 준비된 차량에 동승하여 구급차를 따라 동행하는 시운전을 가졌다.

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를 인북로(삼공회의소~ 새한주유

소) 및 무양로(원대사거리~ 팔봉소방서) 27개 교차로에 구축하고 선보인다.

응급환자 구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했을 때 정상적인 신호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대상 차량의 이동 경로에 우선 신호를 부여해 교차로를 정지없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신호체계를 변경해 준다.

이날 시연회에 앞서 익산시, 익산경찰서, 익산소방서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유지관리 △효과적인 시스템 운영 △시스템의 확대운영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3개월간 시범운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운영경험을 축적한 후 익산경찰서, 익산소방서와 협의하여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11일 미륵사지서 성화채화·봉송... 대회 시작 알려

익산시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 6개 종목 개최... 교통 통제 시민 협조 요청

익산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전세계 생활체육인의 축제인 '2023년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APMG)'가 11일 성화 채화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10시 미륵사지에서 채화경을 이용해 성화가 채화되며 채화된 성화는 주산내에서 전북도지사, 대회 참가자 중 익산시 대표로 김영순에게 넘어가 10시30분쯤 성화봉송 차량인 종화차로 옮겨져 차량 봉송이 진행된다.

이달 12~20일 치러지는 아태마스터스는 생활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 규모 종합 체육대회로 익산에서는 육

상, 야구, 배드민턴, 볼링, 트라이애슬론, 축구 6개 종목이 개최된다.

육상과 야구 배드민턴은 종합운동장에서, 볼링은 킴스리볼링장과 남부탑볼링장, 철인3종은 웅포 철인3종 경기장, 축구는 금마죽구공원에서 열리며, 국내의 선수 4,270명이 참가한다.

특히 육상경기의 꽃인 마라톤에 선수 2,000여명이 참가한다. 이를 위해 마라톤이 열리는 14일 오전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경기 구간인 무양로, 마한로, 하나로 일부 도로에 대해 교통통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구간은 팔봉초 ~ 종합운동장 ~ 롯데마트 ~ 새한주유소 ~ 유스호

스텔 ~ 어양교차로 ~ 각종교차로(하프 반환) 양방향 전면 통제된다.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원활한 교통통제를 위해 익산경찰서와 교통봉사단체의 협조를 받아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교통통제를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상황대처와 보건소를 중심으로 경기장 환자 발생 대응체계를 구축해 차질없는 대회를 운영한다.

또한 외식·숙박업소 위생점검으로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대회기간 동안 익산예술제를 비롯한 지역 행사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2023년 내부청렴도 자체조사 결과 발표

군산시가 내부청렴도 저해요인에 대한 실질적 대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내부 직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자체 내부청렴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은 내부청렴도 원인 분석을 위해 추진됐으며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청렴에 대한 인식도와 개선 방안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종합 점수는 10점 만

점에 6.09점을 받았다. 이는 응답자별 성향 분석을 통해 막연하게만 추측했던 세대 간 인식 차이가 결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내부청렴도에 대한 인식은 직급이 낮을수록,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시는 20~30대 자유로운 MZ세대 공직자가 경직된 기성 조직문화와 만났을 때 느끼는 어려움과 반발심을 이해하고 선배 공무원들이 먼저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바뀌어나가는데 앞장 서야한다고 분석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김미정 군산시 부시장, 집중안전 현장점검

김미정 군산시 부시장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동안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김 부시장은 지난 4월 28일 월명삼계체육관 수영장을 시작으로 4일 군산공공하수처리장 10일 소규모 공동주택인 산복동 금강퍼펙트현장 찾아가 군산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주요 구조부의 손상 균열 여부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육안으로 관측이 어려운 취약지점은 영상 촬영 드론을 활용해 자세히 확인하는 등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시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민·관합동으로 재난위험시설과 취약시설에서 2023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최근 재해가 발생



했거나 국민 관심 분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 113개소다. 시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부서장을 단장으로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을 구성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군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제28회 익산시민의 날 '미래 발전' 다짐

제28회 익산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들은 화합과 결의를 다지며, 지역 발전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익산시민의 날 기념식이 10일 익산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열렸다.

일상회복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28주년을 기념하여 1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익산시민의 날은 1998년 5월 10일 이리시와 익산군이 익산시로 통합된 날을 기념해 내러오고 있다.

시립풍물단 공연으로 시작된 시민의 날 기념식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상영, 시민대상 시상식, 정현을 시장의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민의 날 기념식의 꽃 시민대상 시상식에서는 산업대상에 송호용씨, 사회봉사대상에 정진정씨, 효행대상에 최이례씨, 친환경대상에 김석태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따뜻한 '천원 아침밥' 현장 의견 청취

익산시와 시의회가 10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학교를 찾아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10일 원광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최중요 시의회의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은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 식사를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아침밥먹는 문화를 확산하고 쌀소비 촉진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정부에서 1천원을 지원하고, 학생·학교 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북도와 익산시가 자체예산을 추가 부담해 학생들에게 4,000 ~ 4,500원 상당의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한다.

시는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 학교가 사업대상지에 선정되어 지난 5월 2일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